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이 지 연 연구위원
김 영 지 선임연구위원
박 지 수 부연구위원

요약¹⁾

-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청소년 범죄 환경과 원인 및 경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 범죄 경로에서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았음.
- 연구의 수행은 1) 이론 및 실증연구, 법령 및 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 자료를 검토하는 문헌연구, 2) 소년범죄사건 처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국가통계분석, 3) 소년보호사건 관련 빈도분석, 재비행 여부에 따른 범죄유형별 위기요인 교차분석, 소년범죄 시퀀스 자료 분석 등을 포함하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통계분석, 4)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에 대한 개별심층면접조사, 5)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
- 연구수행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향을 담은 6대 정책과제 - 1) 보호소년 보호력 제고, 2)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3) 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 4)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5) 사법체계 내 소년중심 전문성 제고, 6) 소년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 - 을 도출한 다음, 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총 19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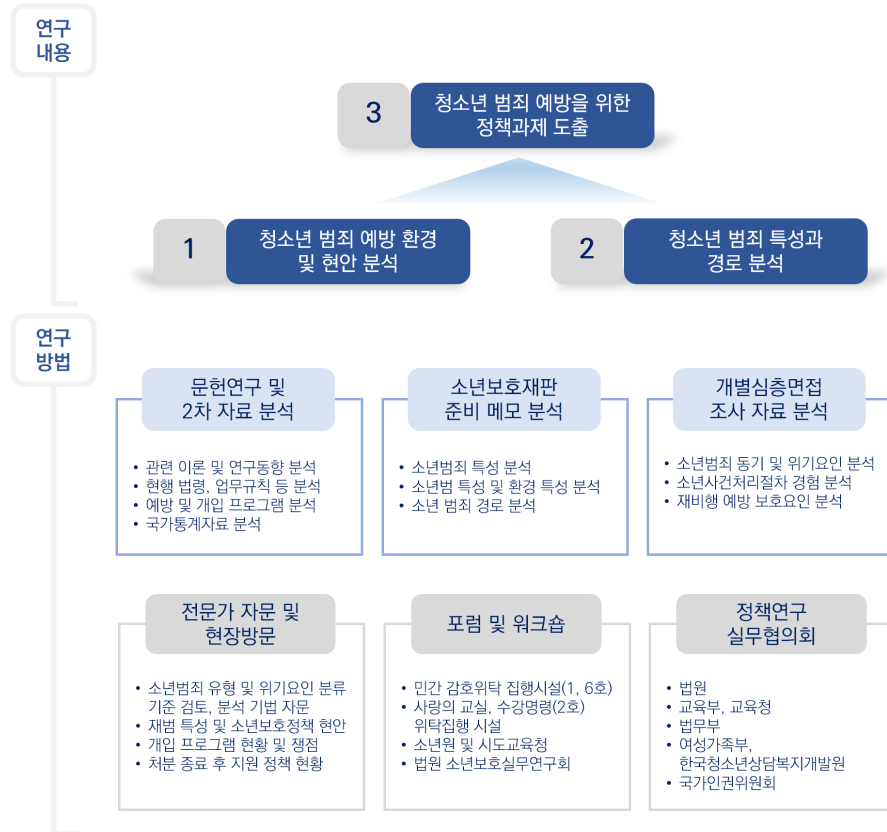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과제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대책"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마련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
 - 정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법무부, 2022. 10. 26. 보도자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의안번호 2119215; 제출일 2022. 12. 18.), 이를 소년범죄에 대한 정부의 엄벌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언론보도와 함께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이 현실이고(매일경제, 2024. 2. 11.),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콘텐츠로 소비되며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덧입고 있음(경향신문, 2023. 5. 12.).
 -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우리사회에서 미성년자로서 청소년들이 갖는 지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세계의 확장이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가족구조의 해체와 개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함.
- ▶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가 소년보호를 통한 재범방지 및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이 범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이 소년보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김혁, 2016),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이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이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아야 함.
- ▶ 본 연구는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범죄 환경과 원인 및 경로를 이해하고,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계분석과 면접조사자료 분석 등 실증 분석에서 발견한 개입 지점과 연계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음.
 -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집단은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질러 소년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한 청소년들이며, 본 연구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의 개념은 청소년 범죄 경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힘.

2. 연구내용 및 방법

- ▶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환경과 원인 및 경로를 이해하고,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한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하였음.

- 논의의 기초: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 정리
 -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 및 국내 제도, 국가 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하여 논의의 기초를 다짐.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 지방의 법원 소년부 판사가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위해 메모한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아 3년간 자료 정제 및 정량화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음.
 - 박지수 외(2023)의 연구에서 그 대상을 확장하여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내에 있는 모든 소년과 그 소년의 사건 및 재판, 위기요인을 분석함(분석대상: 총 3,348명의 보호소년에 대한 7,393건의 재판 준비 메모 일체).
 - 이에 더하여 재비행 특성과 범죄유형별 특성 파악 및 소년범죄 경로를 분석함.

-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 소년들의 생애사를 통해 소년범죄 동기 및 위기요인을 분석함.
 -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을 통해 재비행 예방에 중요한 보호요인을 파악함.
-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마다 만나게 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함.
 - 포럼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하고 선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연구결과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이 낮으며,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많은 이론이 존재함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보호소년 83.2%, 가정 위기요인이 있는 보호소년 61.8%, 학교 위기요인이 있는 보호소년 72.8% - 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요인 평균 개수가 초(初)비행 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음 - 가정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일수록 폭력범죄의 발현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 무단결석을 초비행소년 4.3%, 재비행소년 8.2% - 재판 당시 학업중단을 초비행소년 17.5%, 재비행소년 33.2%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청소년은 부모들이 자신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한 대응이나 지도 등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 -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소년에 대한 보호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임 - 부모의 방임으로 생계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서 '어른'의 부재 속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비행)또래 집단이라는 강한 신념이 발견됨 - 무단결석 등에 대한 학교의 관심 및 조치가 미흡하며 개입 효과가 부족함 ● 예방/개입 프로그램 - 1호 처분 시설에서 보호자특별교육을 통한 부모 및 가족상담의 효과를 확인함 -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가정의 보호력 부족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는 경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여 소년이 처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보호자의 보호력이 부재할 때 이를 보완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함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 제고 및 보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소년범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이어짐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학습에 대한 관여와 참여는 청소년에게 목표를 갖도록 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재판 당시 학업중단율이 초비행 소년은 17.5%인 반면 재비행 소년 33.2%였음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직업훈련소년원에서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학과 공부도 병행하기를 원함 – 사회에 나와서 혼자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여서 학력 취득에 어려움을 겪음 –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사회복귀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보호소년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지도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성취감을 심어주어 학습자체를 하나의 치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산소년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직업훈련소년원인 부산소년원에서 학업을 이어간 사례가 있음	● 소년원 처분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소년원에서 학과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보호처분 기간에 다양한 학습 성취 기회를 제공하여 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의 좌절감 대신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학교가 아닌 보호처분 시설에서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년범에 대해 교육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소년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
범죄유형별로 소년 특성과 원인이 다르나 처분의 개별성과 다양성은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형사사법기관 통계에서 일관적으로 재산범죄 접수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의 증가 추세가 발견됨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성범죄의 경우 타 범죄와 위기요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성비행 재비행 소년은 위기요인 경험률이 무경험 소년보다 오히려 낮음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혼합되거나 전환되지 않고 반복되는 특성을 보임 · 개인 위기요인을 경험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두드러지는 패턴이 확인됨 – 재산범죄는 자료에 등장한 소년의 52.8%가 저질렀으며 최대 26번까지 반복됨 · 재산범죄 횟수의 증가에 따라 평균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 피해 물품은 오토바이, 현금/카드, 전자기기, 의류, 자전거 순으로 빈도가 높음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생계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학교나 또래들이 가정에서 지원받는 모습을 보며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보상심리와 충동조절 능력의 부족이 더해져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음	● 성범죄는 가장 위기요인보다는 개인 위기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재산범죄의 원인은 생계비 마련과 유흥비 마련으로 양분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라 차별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경제적 박탈감이 재산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교육하는 등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음	소년범죄 원인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강화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증가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별도의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13년 우범 107명(0.2%) → '22년 우범 960명(2.2%)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소년법 관련 사건 재비행소년의 27.8%가 시설 거주경험이 있으며, 소년법 관련 사건은 우범통고에 해당함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가출팸에서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됨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처분 종료 후 시설 거부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가 확인됨 – 우범통고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같은 처벌을 받은 것에 억울해함 – 생존을 위해 절도 등을 저지른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연계가 부재 ● 예방/개입 프로그램 – 보호소년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지도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성취감을 심어주어 학습자체를 하나의 치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산소년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직업훈련소년원인 부산소년원에서 학습을 이어간 사례가 있음	●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우범사건으로 소년사법체계로 들어올 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설장 통고 등으로 우범 송치된 소년들에게 사법처리보다 복지적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소년범죄 원인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강화
처분 종료나 사회 내 처우 전환 시 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 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법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되고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되면 다시 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보호관찰 규칙을 준수하기 힘들어하며 차라리 위반하고 시설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자포자기하였던 경험 발견됨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처분 종료 후 시설 거부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가 확인됨 – 연구참여자 중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은 1명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소한 비행으로 시작하였으나 문제아라는 주변의 시선과 낙인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됨 ● 예방/개입 프로그램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 훈련과 자기돌봄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는 자활작업장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둠 – 6호 처분 시설이 보호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들의 사회적응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보호력의 부재로 인해 길러지지 못했던 역량을 보호처분 기간에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야 함 ● 처분 종료 후에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함 ●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생활훈련을 병행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 및 근거 마련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소년형사법 절차에서 소년범에 대한 개입의 공백이 존재하며, 소년범에 대한 민간 관계자들의 이해가 고르지 않음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현재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22년 검찰의 소년부 송치 비율 40.5%,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26.5% － 불기소 중 기소유예 비율이 최근(2022년 기준) 88.8%까지 상향됨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사건 발생일부터 종국결정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됨 － 선행사건 이후 한 달 이내에 다른 사건을 저지른 소년이 41.2%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국선보호조인에 대해 소년들의 부정적인 경험 이 발견되었음 － 자립지원 등 보호자의 역할을 해준 보호직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보호관찰로 통제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음 － 검찰단계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기억 외에는 별다른 개입 경험이 없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법원에서 지정한 보호처분 위탁집행 시설에 대해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당 보호처분의 의미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 검찰 단계에서 소년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국선보호조인이나 법원 지정 보호처분 위탁집행 시설 관계자들이 소년범의 특성과 소년사법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함 ● 보호처분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이 없도록 주기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소년보호 관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소년범죄에 관한 통계자료가 파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경찰 소년사건 처리 시 KICS에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등록하며, 검찰 또한 KICS에 소년범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 － 법원 소년부에는 소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형사부 자료가 모두 취합됨 － 검찰의 소년부 송치율이 20년 41.4%, 21년 38.7%, 22년 40.5%로 높게 나타남, 법원 형사부에서 소년부로 다시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도 20년 40.4%, 21년 35.6%, 22년 42.9%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범죄분류체계가 모두 상이함 · 경찰의 성범죄 분류와 검찰의 성범죄 분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법원은 범죄유형을 경찰이나 검찰만큼 상세히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범의 범죄유형 발달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음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통해 기존 통계자료에서 모두 강력범죄로 분류되던 성범죄의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 범죄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을 통해 소년 및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개입 지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보호처분의 특성상 소년사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해당 부처에서 접근 가능한 내부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년사건을 다루는 기관에서 소년범죄 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소년범죄 현황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

4. 정책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근거로 도출한 정책방향에 따라 6대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총 19개 세부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보호소년 보호력 제고	1.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부과 2.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병행 3.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한 교사 개입 촉진 4.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배치를 통한 학교 보호력 제고
2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1. 전국 직업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에 관계없는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도모 2. 소년원 퇴원 후 학업지속 방안 다양화 3. 현직교원 소년원 파견을 위한 법령 개정
3	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	1.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개입 우선 근거 마련 2.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 및 교육적 접근 강화 3. 재산범죄 관련 소년 대상 경제 및 소비교육 강화 추진
4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1. 직업교육을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활성화 및 설치 근거 마련 2. 소년원 임시퇴원 후 사회정착지원 방안 내실화 도모 3. 소년범 낙인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5	사법체계 내 소년중심 전문성 제고	1.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소년보호관계자 역량 강화 2. 소년보호 관련 종사자 교육 효과성 검증 및 내실화 3. 검찰 수사단계 및 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역량 강화
6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성 추진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1.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소년범죄 현황 관련 연구 추진 2. 통계청 승인통계 등록을 통한 법원 사법연감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 3. 소년범죄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소년범죄분류체계 개발 및 소년형사사법기관 전부 도입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3.5.12). '축법소년' 혐오에 기생하는 사이드 서사는 어떻게 웹툰의 대세가 되었나.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51216210150>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김혁 (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3), 35-72.

매일경제 (2024. 2. 11). "난 강간해도, 살인해도 감옥 안가"...'축법소년' 6만명, 해결책 없나.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05190>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2022. 10. 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bbs/moj/182/564175/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l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U2N1Z202P8T1T700J501H7D6O6M0&ageFrom=21&ageTo=210에서 5월 21일 인출.